

KIEP

## 지역경제 포커스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.kiep.go.kr 137-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-4 2007년 7월 13일

ISSN 1976-0507 Vol. 1 No. 13

## 태국 정정불안의 배경과 경제적 시사점

이 재 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(jhlee@kiep.go.kr, Tel: 3460-1134)

- 최근 태국은 쿠데타에 대한 정당성 논란, 탁신 전(前) 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 등 각종 정치 쟁점에 대한 탁신 지지·반대 세력 간 갈등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검토되는 등 극심한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음.
- 이와 같이 탁신 전(前) 총리를 둘러싼 정치갈등 및 사회불안 확산으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으로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2006년 4/4분기부터 하락세를 기록하고 각종 경제전망 또한 하향 조정되면서 2007년 태국 경제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음.
- 쿠데타 이후 태국 군부정권은 외환 통제와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 갑작스러운 경제 정책 시도로 가시적인 효과 없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, 현재 이자율 하락과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부양을 시도 중이나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임.
- 최근 태국의 경기부진은 정치불안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위축에 기인한 것인 만큼 민주정부 구성과 정치안정을 통한 투자 및 소비 심리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, 향후 태국경제는 환율안정과 경기부양 달성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임.
- 향후 태국 군부정권이 경기부양과 지지율 회복을 위해 다수의 정책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태국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군부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이 필요함.

## 1. 최근 태국 정정불안의 원인 및 배경

- 탁신 전(前) 총리는 태국의 IMF 조기졸업을 이끌어낸 태국의 CEO형 리더로 서민·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2005년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2006년 주식매각 관련 세금 탈루 혐의와 군부 쿠데타로 총리직에서 사임하였음.
- 2006년 9월 태국 군부는 쿠데타라는 비민주적인 정권교체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회 여러 계층으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이끌어내며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음.
- 쿠데타로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환율 및 증시 조정이 있었을 뿐 쿠데타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미미했음.
- 그러나 쿠데타와 같은 정정불안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.
- 최근에는 과도정부에 대한 지지율 저하와 탁신 전(前) 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등 주요 정치현안을 둘러싼 탁신 지지·반대 세력 간 시위와 갈등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검토되는 등 극심한 정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.
- 2007년 초 비리·부패 조사 지연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과도정권 수립 초기 75%에 달하던 과도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50% 미만으로 폭락하고 반군부 시위가 확산되었음.
- 최근에는 군부 과도정권의 정권 정당성 및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논란, 탁신 전(前) 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 주요 정치 쟁점에 대한 탁신 지지·반대 세력들의 시위 확대로 방콕 시내 주요 지역에 대규모 경찰병력이 배치되고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검토되는 등 사회불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.

## 태국의 주요 정치·경제 이슈(2006~2007년 6월 현재)

- 2006. 2    탁신 총리의 Shin Corporation 지분매각 관련 탈세혐의로 퇴진 시위 확대  
          탁신 총리,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 실시 발표
- 2006. 4    조기 총선 실시, TRT 승리(야당은 보이콧)
- 2006. 5    태국 헌재 4월 총선 무효 판결, 10월 재선거 발표
- 2006. 8    군인사 관련 탁신-군부 간 갈등 심화, 총리 암살기도 사건 배후로 군부 지목  
          한·ASEAN FTA 체결(태국 불참)
- 2006. 9    쏘티 육군사령관 무혈 쿠데타 성공, 정치활동 금지 선포
- 2006. 10   수라웃 총리 임명, 과도내각 수립
- 2006. 12   「외환의무예치안(URR: Unremunerated Reserve Requirement)」 실시  
          증시 혼란으로 의무예치 대상 규모 대폭 축소
- 2007. 1    「외국인투자법(FBA: Foreign Business Act)」 개정안 공개
- 2007. 3    탁신 정권 부패 조사 및 헌법 개정 지연에 따른 반군부 시위 확대
- 2007. 4    일·태 EPA(Japan-Thail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 서명
- 2007. 5    태국 헌재 TRT 해체 판결  
          탁신 전 총리 및 TRT 출신 의원 110여 명 5년간 정치활동 금지
- 2007. 6    태국 과도정권 정치활동 전면 허용
- 2007. 9    헌법 개정(예정)

## 2. 최근 주요 경제 현황

### ■ 최근 태국 거시경제지표 하락세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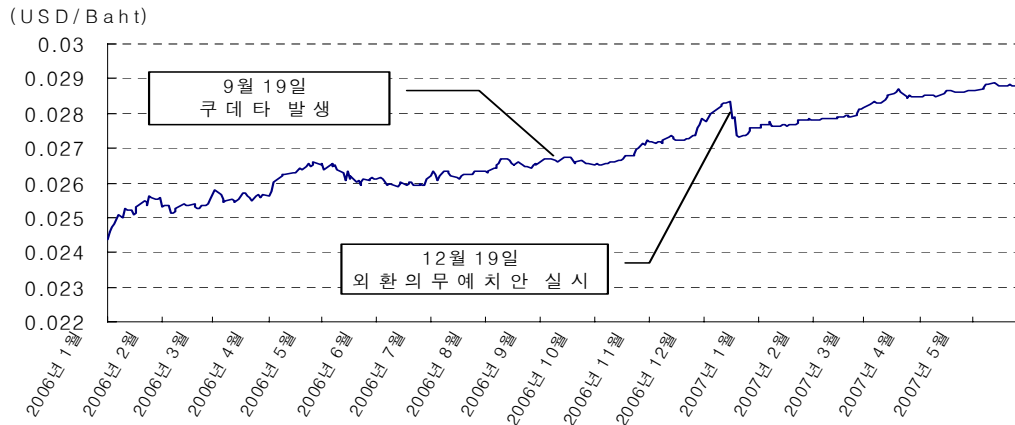
표 1. 태국 분기별 거시경제 동향(2006년 1분기~2007년 1분기)

|              | 단위 및 기준   | 2006년 1Q  | 2006년 2Q  | 2006년 3Q  | 2006년 4Q  | 2007년 1Q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실질GDP성장률     | %         | 6.1       | 5.0       | 4.7       | 4.2       | 4.0       |
| 소비자물가지수(CPI) | %         | 5.7       | 6.0       | 3.6       | 3.3       | 2.5       |
| 환율           | Baht/USD  | 39.29     | 38.07     | 37.64     | 36.53     | 35.54     |
| 수출           | 백만 달러     | 29,558.83 | 30,997.65 | 35,060.88 | 34,332.36 | 34,825.77 |
| 수출 성장률       | %         | 2.56      | 4.87      | 13.11     | -2.08     | 1.44      |
| 수입           | 백만 달러     | 29,315.87 | 32,296.61 | 33,104.96 | 31,257.72 | 30,332.42 |
| 수입 성장률       | %         | 1.55      | 7.51      | 7.70      | -3.78     | -0.66     |
| 외환보유고        | 백만 달러     | 4,848.67  | 5,123.00  | 4,955.00  | 6,922.67  | 8,260.00  |
| 민간소비지수(PCI)  | 2000년=100 | 119.6     | 120.4     | 121.4     | 121.0     | 119.0     |
| 민간투자지수(PII)  | 2000년=100 | 172.7     | 174.6     | 176.4     | 170.0     | 166.1     |

자료: Global Insight([www.globalinsight.com](http://www.globalinsight.com)); 태국중앙은행([www.bot.or.th](http://www.bot.or.th)).

- 최근 태국경제는 바트화 절상과 정치 갈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증가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2006년 4/4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.
- 태국 과도정부는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4.97%에서 4.0%까지 내리고 확대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 중이나 아직 효과는 미미함.
- 급속한 바트화 절상과 일관성 없는 외환정책으로 시장의 혼란만 가중됨.
- 2006년 국제 유동성 증가로 인한 미 달러화 약세로 대규모의 유동성이 동아시아로 유입되자, 주변국가에 비해 비교적 유출입이 자유로우면서 환투기 공격에 적당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태국에 투기성 단기자금이 집중되었음.
- 이로 인해 2006년 말 바트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전년동기대비 약 13% 절상되면서 바트화 환율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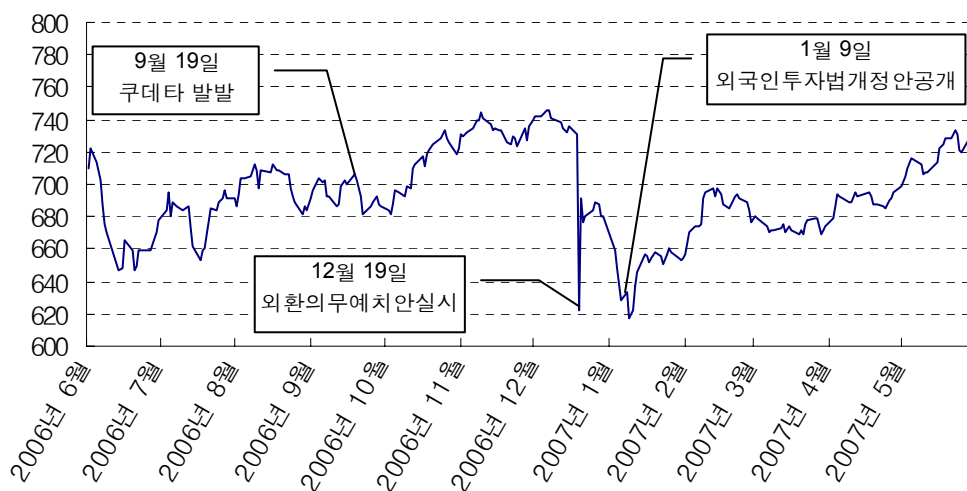
그림 1. 태국 바트화 환율 추이(2006년 1월~2007년 5월)



자료: 태국중앙은행(www.bot.or.th).

- 이에 태국 과도정부는 달러화 약세와 바트화 절상으로 인한 투기성 단기 자금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서, 교역과 관련없이 바트화로 환전되는 2만 달러 이상의 모든 외화에 대해 그 30% 이상을 중앙은행에 1년 이상 무이자로 의무 예치하도록 규정한 「외환의무예치안(URR: Unremunerated Reserve Requirement, 이하 URR)」을 2006년 12월 19일 실시하였음.

그림 2. 태국 주가(SET Index) 추이(2006년 6월~2007년 5월)



자료: Bloomberg.

- 갑작스러운 URR 실시로 인한 시장의 혼란으로 증시가 약 14% 폭락하자 태국 금융 당국은 하루 만에 증권 및 선물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조치의 대부분을 철회하였고 이에 증시는 바로 회복되었음.

- 이러한 태국 군부 과도정권의 예상치 못한 외환정책은 가시적인 효과 없이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켜 태국 금융 당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음.

- 바트화 절상과 내수경기 위축으로 2006년 4/4분기부터 교역량이 감소함.

표 2. 태국의 분기별 수출입 추이(2006년 1/4분기~2007년 1/4분기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|      | 2006년 1분기 |      | 2006년 2분기 |       | 2006년 3분기 |       | 2006년 4분기 |       | 2007년 1분기 |    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     | 금 액       | 증가율  | 금 액       | 증가율   | 금 액       | 증가율   | 금 액       | 증가율   | 금 액       | 증가율   |
| 수 출  | 29,558.83 | 2.56 | 30,997.65 | 4.87  | 35,060.88 | 13.11 | 34,332.36 | -2.08 | 34,825.77 | 1.44  |
| 수 입  | 29,315.87 | 0.55 | 32,296.61 | 10.17 | 33,104.96 | 2.50  | 31,257.72 | -5.58 | 30,332.42 | -2.96 |
| 수 지  | 242.95    | -    | -1,298.96 | -     | 1,955.92  | -     | 3,074.64  | -     | 4,493.35  | -     |
| 총교역량 | 58,874.70 | 1.55 | 63,294.26 | 7.51  | 68,165.83 | 7.70  | 65,590.07 | -3.78 | 65,158.19 | -0.66 |

자료: 태국 중앙은행(www.bot.or.th).

- 바트화 절상과 군부 쿠데타 등 각종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2006년 태국의 수출입은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.
- 그러나 환율 절상으로 수출이 점차 감소한 반면 수입증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수입 또한 동반 하락하면서 작년 4/4분기부터 교역량이 하락하고 있음.
- 이는 바트화 절상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국내 소비 위축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임.
- 외국인투자 지분제한 관련 논란으로 외국인들의 투자 여건이 축소될 것으로 보임.
- 태국 「외국인투자법(FBA: Foreign Business Act, 이하 FBA)」은 탁신 전(前) 총리가 사임하게 된 주된 원인인 Shin 그룹 지분매각 사건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음.

- 탁신 총리가 FBA 분류상 List 1(외국인 지분 허용 50% 미만)에 속하는 Shin 그룹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투자법인 테마섹(Temasek)사의 지분이 50%를 초과해 이로 인한 불법 시비가 확산되면서 법개정 요구가 시작되었음.

표 3. 태국의 투자 제한 업종 및 지분 허용 기준

|        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산업 예             | 지분 허용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List 1 | 특정 이유로 외국인기업 소유 금지 업종 | 신문, 방송, 농축산업 등   | < 50%  |
| List 2 | 안보, 문화, 자원, 환경 관련 업종  | 안보, 토지, 예술 등     | < 75%  |
| List 3 | 해외시장 비경쟁 업종           | 제분, 수산, 법률, 회계 등 | ≤ 100% |

자료: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, Ministry of Commerce(www.dbd.go.th).

- 이에 태국 과도정권은 2007년 1월 FBA 개정안을 공개하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이며, 태국 상무부(Ministry of Commerce)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번 FBA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됨.
  - 첫째, 이번 FBA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 FBA에서 외국인기업을 지분을 50% 초과 여부로 판단하던 것을 의결권 50% 초과 여부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음.
  - 둘째, 그동안 암암리에 성행하던 태국인 대리인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벌금이 기존 10만 바트 이상에서 50만 바트 이상으로 5배 강화되었음.
  - 셋째, List 3에 속하던 일부 업종이 다른 관할기관으로 이관되면서 List 3에서 삭제됨.
- List 1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들은 일정 기간 이내에 지분율 및 의결권을 50% 미만으로 조정해야 하며, List 2에 투자한 기업도 국내 기업 자격을 유지하려면 지분율과 의결권을 50% 미만으로 조정해야 함.
- 한편 이번 FBA 개정은 현 정권의 반외자 정서와 FBA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으로 입법과정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음.
- 이번 FBA 개정에 대한 논란으로 외국인들이 태국 내 사업 확장을 보류하고 주변국으로 신규투자처를 변경하는 등 FBA 개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.

### 3. 향후 경제 전망과 과제

- 정세불안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됨.
- 태국은 군부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정치 및 언론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, 수도 방콕의 시위 확대와 연이은 남부 이슬람지역의 폭탄테러로 사회불안이 증가하고 있음.
- 2007년 5월 말 태국 헌법재판소가 2006년 4월 총선 비리를 이유로 전(前) 여당인 타이랏타이당(TRT)을 해체하고 탁신 전 총리를 비롯한 TRT 의원 110여 명의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해 당분간 정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.
- 헌법재판소의 TRT 해체 판결 이후 탁신 전 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논란으로 탁신 지지 및 반대 세력 간 시위가 격화되면서 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.
- 이와 같은 정세불안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 상승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내수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.
- 2007년 1/4분기에는 국내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동차, 오토바이 등의 내구재 소비 감소로 민간소비지수(PCI: Private Consumption Index)가 전년동기대비 약 0.5% 하락하였음.
- 민간투자지수(PII: Private Investment Index) 또한 2006년 4/4분기부터 이어져 온 기계 및 건설 분야의 투자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.9% 하락하는 등 소비와 투자 전반에 걸쳐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<sup>1)</sup>
- 태국 경제연구기관인 NESDB(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

1) 태국 중앙은행, *Bank of Thailand News*, no. 20(2007. 4. 30).

Board)는 최근 2007년 태국 경제성장 전망을 당초 4.5% 수준에서 4.0~4.5%로 하향 조정하였으며, 태국 재무부도 2007년 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3.8~4.3%로 발표하였음.

- 또한 세계은행도 최근 태국의 2007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당초 4.6%에서 4.3%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태국경제가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.
- 이에 태국정부는 해외투자 한도 증액을 통한 외환유출 유도(1,000만 달러 → 5,000만 달러), 이자율 하락(4.9% → 4.0%), 확대재정 실시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임.
- 향후 태국경제는 환율 안정과 경기부양 달성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.
- 2006년부터 이어져온 바트화 절상을 막기 위한 태국 금융 당국의 각종 정책 시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방어선이었던 달러당 35바트가 무너졌으며 향후 환율 문제가 태국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
- 환율이 2006년과 같이 큰 폭으로 절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미 달러화 약세로 환율 상승 가능성 또한 낮아 당분간 달러당 34바트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.
- 최근 태국정부는 환율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정책을 시도 중이나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며, 2007년 말 민주정부 구성으로 사회안정을 찾은 후에야 투자 활성화와 경기부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.

## 4. 시사점

- 태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들은 향후 바트화 환율 변화 및 군부정권의 향후 각종 경제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.

- 최근 태국 바트화의 대규모 절상 문제로 지난 연말과 같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국제금융시장 일각에서 제기되었음.
-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는 급속한 자본이탈로 인한 바트화 폭락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인해 바트화가 절상된 것이며, 최근 외환보유고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.
- 다만 수출품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가 태국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요소로 남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트화 환율 추이를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.
- 태국 군부정권은 지난 수개월 동안 외환통제,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같은 주요 경제정책을 갑작스럽게 추진하여 별다른 실효 없이 시장의 혼란만 야기했으며, 이로 인해 현 군부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뢰도와 지지율이 극히 낮아진 상황임.
- 향후 태국 군부정권이 경기부양과 지지율 회복을 위해 다수의 정책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태국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군부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이 필요함.